

唐詩에서 나타난 南嫌 정서 연구

- ‘瘴’지를 중심으로

김동진*

— 목 차 —

1. 서론
2. 전통과 선입견에 지배된 공간
3. 자연지리가 다른 낯선 공간
4. 풍토병을 일으키는 배척의 공간
5. 결론

국문초록

이 논문은 ‘瘴’이라는 지리물상을 묘사한 唐詩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唐代 시인들이 중국의 남부 지역에 대해 품고 있었던 혐오의 정서를 고찰하였다. 이러한 혐오감을 초래한 세 가지 이유를 시에서 포착할 수 있었는데, 문학적 전통과 함께 계승된 남방에 대한 선입견, 북방과 다른 자연지리가 야기한 생소함, 그리고 고통을 동반한 남방 특유의 풍토병이 바로 그것이었다. 이에 본 논문은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시인들의 남방 혐오 정서의 형성 과정을 검토했고, ‘瘴’이라는 이미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묘사되었고 어떤 방식으로 타 이미지들과 연계하여 南嫌의 마음을 반영했는지, 또 ‘瘴’이 시의 주지나 시인의 감정 및 사상과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 등 문제에 대해 문학적 그리고 문학지리학적 각도에서 탐구하였다.

키워드: 남방, 혐오, 장기, 문학지리학, 지리물상, 풍토병

* 고려대학교 중일어문학과 박사과정, 고려대학교 4단계 BK21 중일교육연구단 참여대학원생

1. 서론

지역감정을 갖고 특정 지역과 그곳의 주민을 적대시하는 것은 국토의 크기와 상관없이 세계 각국에서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현상이다. 56개에 달하는 민족과 세계 3위의 국토 크기를 자랑하는 중국에도 지역감정이 존재한다. 간단한 예로, 수도로서 수많은 역사적 문물을 보유하는 베이징의 주민들의 눈에 타지 사람들은 비문화권에 사는 시골사람으로 보이고, 국제도시로서 베이징을 뛰어넘는 경제력을 갖춘 상하이 주민들은 외지 사람들을 상하이의 자본에 빌붙어 사는 걸인으로 취급한다. 이처럼 본인을 중심으로 세상을 인식하고 자신이 머무르는 장소 이외의 공간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는 태도는 고대 중국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 당시 지식인들은 남방¹⁾을 혐오했으며, 특히 越城嶺, 都龐嶺, 萌渚嶺, 騎田嶺, 大庾嶺, 이 다섯 개의 고개 이남의 지역(嶺南)을 불모지로 인식하였고, 그곳에 가는 것을 사형선고처럼 받아들였다.

唐代 시가에 있어서 ‘傷春悲秋’와 더불어 타지에서 나그네로서 느끼는 수심은 시인들이 즐겨 읊는 핵심 주제 중 하나이다. 그리고 이러한 타지는 도성 장안이나 시인들의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남부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즉 남방에서의 삶을 노래한 시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므로 그 지역에 대한 시인들의 평가와 인상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당시의 내용과 사상을 제대로 파악하는 데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그 작업의 일환으로 본고에서는 남방 특유의 지리 物象²⁾을 가리키는 시어에 초점을 맞춰 남방을 배경

1) 龔勝生에 따르면, 隋唐시기 때 瘴氣와 그로 인한 질병은 大巴山과 장강 이남의 지역에 주로 발생했다고 한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임시로 大巴山과 장강을 남북의 경계선으로 지정하고, 이 경계선의 남쪽지역을 본문에 등장하는 ‘남방’이란 단어가 가리키는 공간으로 규정한다. 자연히 경계선 북쪽은 ‘북방’에 해당한다. (龔勝生, 「2000年來中國瘴病分布變遷的初步研究」, 『地理學報』, 48卷 4期, 1993, p.306)

2) 본고에서 사용한 ‘지리 物象’이나 ‘지리 事象’이란 개념은 문학지리학 용어로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 지리 物象은 대지 표면에 나타나는 지리적 형상으로 실제 사물을 가리킨다. 이는 自然類와 人文類로 구성되어 있는데, 산, 강, 동식물 등의 物象이 자연류이고, 길, 다리, 집 등의 物象이 인문류이다. 지리 사상은 대지 표면에 일어나는 실

으로 한 唐詩를 분석하고자 하는데, 그것은 바로 ‘瘴’이다.

고대 중국인들은 남방에 위치한 열대 산림에는 ‘瘴’이라는 습하고 더우며 답답한 독성 기운이 발생하고, 이는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여겼다. ‘瘴’은 덥고 습한 남방의 자연환경의 특징을 함축한 지리 물상이고, ‘독성을 지녔다’는 특성은 남방에 대한 시인들의 부정적인 평가와의 연관성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瘴’이란 시어를 연구하면 남방이 시인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간이었는지, 어째서 그 공간에 거부감을 갖고 있었는지, 이러한 ‘南嫌’을 어떠한 수사를 통해 나타냈는지, 아울러 그 감정이 시인이 표출하고자 하는 중심사상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등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瘴氣에 대한 이전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우선 馮漢鏞의 「瘴氣的文獻研究」 같이 장기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瘴病的 정확한 의미를 탐구하는 병리학 적 연구가 있다. 그 다음은 지리학 적 연구로, 龔勝生의 「2000年來中國瘴病分布變遷的初步研究」 처럼 장기와 瘴病的 지리적 분포에 대해 통계 및 분석을 하는 연구가 있고, 蕭璠의 「漢宋間文獻所見古代中國南方的地理環境與地方病及其影響」 같이 지리환경과 장기 발생간의 인과관계를 고찰하는 연구도 있다. 아울러 左鵬의 「宋元時期的瘴疾與文化變遷」 처럼 중원문화의 확산에 따른 장기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분석하는 인문학적 연구도 있다. 하지만 본고처럼 문학작품에 등장하는 장기의 문학적 이미지로서의 역할과 문인들에게 있어서 장기가 갖는 의미를 분석하는 연구는 매우 드물다. 따라서 이번 연구가 시의 내용과 시인의 사상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도울 뿐만 아니라 瘴氣 관련 학술 연구의 다채성을 제고시키고,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리라 믿는다.

제 상황 혹은 사실인데, 이 역시 자연류와 인문류로 나뉜다. 동물의 이동 번식 죽음, 식물의 개화 낙엽 등의 사상이 자연류이고, 농사, 어업, 벌목, 건설 등의 사상이 인문류이다. (曾大興, 『文學地理學概論』, 北京: 商務印書館, 2017, p.73)

2. 전통과 선입견에 지배된 공간

고대의 지식인들은 문학적 전통을 수용하는 것을 지식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글에 정통성을 부여하는 수단으로 여겼다. 전고의 사용에서도 드러나듯이 지식인들은 전통의 계승을 당연시했기 때문에 남방에 관한 관습적인 인식은 북쪽 사람들이 남방에 대해 선입견을 갖게 하였다.

관습적 인식의 주된 정보원으로 고전 문헌이 있는데, 고대의 지리서라고 할 수 있는 『山海經』의 「海外南經」과 「海內南經」 등 편은 남방을 괴물과 야만인들이 기괴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문명인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없는 공간으로 묘사하였다. 예를 들어 입술이 길고 피부가 검으며 온몸에 긴 털이 난 인간의 얼굴을 한 생물이 사는가 하면, 꼬끼리를 삼킬 정도로 거대한 뱀들도 존재한다. 게다가 온몸에 깃털이 나고 날개를 지닌 인간도 있고, 혀가 거꾸로 나거나 머리가 세 개가 달린 인간도 있다. 한편, 『시경』과 더불어 중국 시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楚辭』 역시 남방을 정상인이 살지 못하는 지역으로 표현했는데, 「招魂」이란 작품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혼이여 돌아오게. 남방은 머물 곳이 못 된다네. 이마에 문신을 하고 이가 검은 야만인들은 인간의 고기를 가져다 제사를 지내고, 그 뼈를 다져 젓갈을 담는다네. 살무사는 풀처럼 많고, 큰 여우는 천 리에 가득하다네. 큰 독사는 머리가 아홉 개고, 재빠르게 왔다 갔다 하며, 사람을 먹어 자신의 마음을 채운다네. 혼이여 돌아오게. 오래 노닐면 안 된다네.
魂兮歸來。南方不可以止些。雕題黑齒，得人肉以祀，以其骨爲醢些。蝮蛇綦綦，封狐千里些，雄虺九首，往來儵忽，吞人以益其心些。歸來兮。不可以久淫些。

이처럼 『楚辭』 역시 남방을 괴이한 생물들이 들끓는 위험한 공간으로 그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秦漢이래로 북방에 자리 잡았던 중원의 왕조는 수차례 출병하여 남방을 정벌하려고 했는데, 남방의 기후가 초래한 질병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

다. 이는 『後漢書·馬援傳』에 나오는 “馬援은 군대를 이끌고 경성으로 돌아왔는데, 軍吏 중에서 풍토병에 걸려 죽은 이가 10명 중 네 다섯 명이나 되었다(振旅還京師, 軍吏經瘴疫死者十四五)”라는 구절이나 『後漢書·南蠻傳』에 실린 “南州의 풍토는 따듯하고 더운데다가 장기까지 있어서 죽음에 이르는 자가 반드시 10명 중 네 다섯 명이나 되었다(南州水土溫暑, 加有瘴氣, 致死者十必四五).”라는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당시 북방 사람들 사이에서는 남방에는 북방 사람을 해쳐 진군을 방해하는 장기가 존재한다는 인식이 형성되었다.³⁾ 그리고 이러한 장기는 풍토병을 일으켰는데, 『嶺外代答·風土門·瘴』은 장기로 인해 걸리는 풍토병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하였다.

남방의 모든 병은 다 ‘瘴’이라고 불린다. 그 본질은 중원의 傷寒(현대의 티푸스와 유사한 열병)과 유사하다. 기후가 답답하고 더운 곳에 瘴氣가 생기는데, 봄여름에 특히 많이 발산되고, 겨울에도 사그라지지 않는다. 초목, 그리고 강과 샘은 모두 그 독 있는 기운을 받아들이게 된다. 사람이 그 환경 속에서 살며, 날마다 그 독을 들이마신다면, 원기가 쇠퇴하여 이내 풍토병으로 발전하게 된다.
南方凡病, 皆謂之瘴, 其實似中州傷寒. 蓋天氣鬱蒸, 陽多宣泄, 冬不閉藏, 草木水泉, 皆稟惡氣. 人生其間, 日受其毒, 元氣不固, 發爲瘴疾.

이와 같이 장기는 남방에서 만병의 근원으로 여겨질 만큼 악명이 높았으니, 북방 사람들의 경계 대상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풍토병에 걸릴 각오를 해야 하는 남방을 북방의 문인들은 위험지대로 인식했고 그곳에 가는 것을 기피했다.

장기가 만연한 남방은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조차 꺼린다고 여겨졌는데, 그 대표적인 동물은 기러기다. 고대 중국인들은 衡山(오늘날 湖南省 衡陽市の 南嶽區에 위치)의 남쪽, 즉 衡陽에는 回雁峰이라는 봉우리가 있는데, 추위를 피해 남쪽으로 내려가는 기러기가 이곳에 이르면 더 이상 南下하지 않는다고

3) 張文, 「地域偏見和族群歧視: 中國古代瘴氣與瘴病的文化學解讀」, 『民族研究』, 3期, 2005, p.72.

여겼다. 이러한 인식은 漢代 張衡의 「西京賦」의 기러기에 대한 묘사에서 드러난다. “남쪽으로는 衡陽까지 날고, 북쪽으로는 雁門關에 머무르네(南翔衡陽, 北棲雁門).” 漢代 應瑒 역시 이러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는데, 「侍五官中郎將建章台集詩」의 “답하길 나(기러기)는 변세의 관문에서 와서 장차 衡陽에 가서 머무르려고 하네(言我塞門來, 將就衡陽棲).”라는 구절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衡陽의 回雁峰과 마찬가지로 大庾嶺(오늘날 江西省과 廣東省의 경계지대에 위치)에도 역시 기러기가 남하의 발걸음을 멈춘다는 전설이 얽혀, 두 지점이 인간이 거주 가능한 공간의 경계선이라는 인식은 문학적 전통으로서 문인들의 뇌리에 깊이 뿌리내렸다. 그 결과, 후자에게 있어서 두 산 너머에 있는 영남은 겨울을 날 따뜻한 지방을 찾는 기러기가 피하는 지역, 즉 짐승도 삼가는 험난한 지역으로 낙인 되었다.

결국 남방에 대한 이러한 전통적인 인식들 때문에, 그곳을 직접 유람한 경험도 없는 문인일지라도 남방을 혐오하는 경향을 보이게 되었다. 그들은 관습적 이미지에 근거하여 상상을 통해 남방이란 공간을 구현하였고, 본인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끼치지 않았음에도 남방에 대한 혐오를 시속에 담아냈다. 이를 보여주는 작품으로 皎然의 「送沈秀才之閩中」을 들 수 있다.

越客不成歌, 春風起淥波.
越지방 나그네는 노래를 부르지 못하지만, 봄바람은 맑은 물결 일으키네.
嶺重寒不到, 海近瘴偏多.
중첩된 산 고개에 추위는 이르지 않고, 바다가 가까워 瘴氣가 많은데.
野戍桃榔發, 人家翡翠過.
야외 주둔지에는 야자수가 나고, 인가에는 물총새가 지나가네.
翻疑此中好, 君問定如何.⁴⁾
오히려 이 안에 좋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대에게 묻건대 어떻게 생각
하는지요?

이 시는 皎然이 閩中⁵⁾으로 가는 친구 沈모를 전송하며 지은 시다. 송별은

4) 『全唐詩』, 권 818_23.

배를 타는 강가에서 자주 이루어지므로 수련에서는 강가에 봄바람이 부는 광경을 묘사했다. 활기 넘치는 풍경임에도 불구하고 나그네 신분으로 곧 영남으로 갈 친구는 그것을 즐기며 시를 읊을 기분이 아니었다. 영남을 향한 여정을 앞두고 우울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皎然은 관습적인 이미지를 근거로 함련에서 영남을 상상하여 그려냈고, 경련에서는 영남의 지표식물인 아자수를 언급하여 현실감을 더하였다. 기러기처럼 추위도 거주 가능 지역의 경계선인 대유령을 넘지 못하는데, 이는 그곳의 기후가 덥다는 것과 친구가 문명지로부터 완전히 격리될 것을 의미한다. 바다가 가까워 장기가 넘친다고 서술했는데, ‘瘴’이란 시어는 ‘海’나 ‘江’ 같은 광범위한 물 관련 자연물과 자주 결합되어 영남을 묘사하는 시에 등장한다. 이는 단순히 바다나 물에 인접한 지리환경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큰 공간에 장기가 자욱한 혹독한 광경을 연상시킨다. 이렇게 皎然은 영남을 긍정적으로 구현하여 친구를 다독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장기를 묘사함으로써 열악한 공간으로 표현했다. 이로써 그는 극지로 가는 친구의 회재불우와 어두운 미래에 대한 동정심을 극대화시켜 표현할 수 있었다.

이처럼 영남에 대한 상상은 그 지방으로 가는 이를 전송하는 송별시에서 잘 이루어진다. 또 다른 예로 韓翃의 「送劉評事赴廣州使幕」을 보자.

征南官屬似君稀，才子當今劉孝威。
 남쪽으로 가는 부관 중에 그대 같은 이는 드물고, 재능 있는 그대는 오늘날의 劉孝威라네.
 蠻府參軍趨傳舍，交州刺史拜行衣。
 만족 담당 관청의 참군은 여관으로 달려가고, 交州의 자사는 행장 입을 이에게 인사하네.
 前臨瘴海無人過，卻望衡陽少雁飛。
 앞에 마주한 장기바다는 건너는 이 없고, 뒤돌아보니 衡陽에는 날고 있는 기러기가 적네.

5) 閩中: 閩 지역은 오늘날의 浙江省 북부에 해당하는 吳越 지방과, 현대의 廣東·廣西, 그리고 베트남의 중북부에 해당하는 南越 지방 중간에 있어서 ‘閩中’이라고도 불렸다.

爲報蒼梧雲影道, 明年早送客帆歸.⁶⁾

바라건대 蒼梧郡의 구름길이 내년에 일찍 나그네의 범선을 다시 데려
오길.

이 역시 영남에 가본 적이 없는 韓翃이 廣州 절도사의 막부에 부임하는 劉
評事를 송별하면서 쓴 글이다. 앞 시와 유사하게 韓翃은 劉評事의 회재불우한
처지와 앞날에 대한 연민의 정서를 부각시키기 위해 劉評事를 역사인물에 빗
대어 그의 보기 드문 재능을 칭송한 다음, 경련에서 전통적 이미지를 근거로
영남이란 공간을 형상화했다. 바다에 瘴氣가 가득 차 건널 사람이 없다는 것
은 그곳은 장기의 폐해 때문에 사람이 못 사는 곳이고, 인적이 없는 고독의
땅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게다가 回雁峰의 전설처럼 사람뿐만 아니라 기러기
도 남방을 거부하는 장면을 연출하여 경련 출구에 담긴 의미를 강조했다. 미
련에서 하루라도 빨리 돌아오기를 염원하는 모습 역시 영남은 오래 머무를
공간이 못 된다는 작가의 인식이 담겨있다.

다음은 송별과 관련이 없는 寒山の 「詩三百三首·其一百三十三」이라는 시
를 검토해보자.

之字何惶惶, 卜居須自審.

그대는 왜 허둥지둥하는가? 거처를 점칠 때는 모름지기 스스로 잘 살펴
야 한다네.

南方瘴癘多, 北地風霜甚.

남방에는 장기로 인한 병이 많이 발생하고, 북쪽 땅은 바람과 서리가 심
하네.

荒陬不可居, 毒川難可飲.

황량한 산기슭은 살 수 없고, 독 있는 개울물은 마실 수가 없네.

魂兮歸去來, 食我家園菘.⁷⁾

혼이여 돌아오게나. 우리 집 정원의 오디를 드시게.

6) 『全唐詩』, 권 245_17.

7) 『全唐詩』, 권 806_1.

이 시는 寒山이 거처를 찾기 위해 집을 치는 지인에게 조언을 하고자 지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 시에서는 북방을 바람이 거세게 불고 서리가 내리는 한지로 묘사하였고, 남방에 대해서는 瘴氣로 인해 병이 자주 일어나고, 그 기운이 긴 강의 물은 독이 있어 마실 수 없는 황량한 공간으로 묘사하였다. 이 때문에 거주하기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앞서 언급한 「招魂」의 전고를 사용해 남방을 떠돌지 말고 자신이 있는 곳으로 돌아오라고 권했다. 요컨대 남방을 장기 때문에 살 수 없는 불모지로 그려냄으로써 그와 대비되는 자신이 있는 공간이야말로 이상적이라는 관점을 드러냈고, 이를 통해 속세에서 방황하지 않고 전원엔 은거하여 유유자적하는 즐거움을 표출했다.

하지만 전통적 인식만을 기반으로 형상화한 남방이란 공간은 독자들에게 추상적이고 대략적인 인상만을 남겨줄 뿐이고, 남방에 대한 혐오를 생동감 있게 표현하기에는 다소 부족하다. 이에 비해 몸소 남방의 땅을 밟은 시인들은 문학적 전통을 사용하는 데 그치지 않았고, 북방과 구분되는 자연지리를 구체적으로 묘사함으로써 남방을 싫어하는 태도에 개연성을 부여하였다.⁸⁾

3. 자연지리가 다른 낯선 공간

당대 문인들에게 있어서 조정이 위치한 長安은 임금을 가까이에서 섬길 수 있는 출세와 기회의 땅이었다. 그리고 고향은 문화적으로나 기후적으로나 그들에게 친근감을 주고 안전감을 느끼게 해주는 공간이었다. 그러므로 그러한 공간에 거주하던 시인들이 남방이란 새로운 공간에 입주한다는 것은 대개 관도에서의 실패를 의미하였고, 이는 실의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동반했다.

8) ‘瘴’이란 시어가 등장하는 당시 중에서 인문지리의 차이를 묘사하는 시도 드물게 있으나, 그러한 차이에 대해 보인 시인들의 감정이 아직 혐오의 정도까지는 이르지 않았다. 즉 인문경관의 차이가 남방을 낯선 공간으로 만들 수는 있지만 남방의 독특한 자연지리처럼 작가의 혐오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남방의 자연지리를 분석하는 데 치중하였다.

그렇게 남방에 도달한 시인들은 자연스럽게 과거에 소비했던 장안 또는 고향과 남방의 자연지리를 비교하게 되는데, 瘴氣를 포함한 차이점들을 찾아내면서 남방은 낯선 공간이란 것을 확신하게 되고, 이로써 불우와 향수의 감정이 증폭된다. 그 자세한 양상을 張均의 「流合浦嶺外作」을 통해 살펴보자.

瘴江西去火爲山, 炎徼南窮鬼作關.

장기 가득한 강의 서쪽으로 가니 불이 산을 이루고, 무더운 남방의 끝으로 가니 귀신이 관문에 있네.

從此更投人境外, 生涯應在有無間.⁹⁾

이제부터 인간세상 밖에 몸을 두니, 생명은 아마도 유무 사이에 있겠지.

이 시는 廣西 北海市の 습포로 유배된 張均이 鬼門關을 넘으며 지은 시다. 鬼門關은 廣西 北流市の 서쪽에 있다. 덥고 습한 환경 때문에 瘴氣가 발생하고, 관문을 넘으면 10명 중 1명만이 돌아올 수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말 그대로 지옥의 문이라 여겨졌다.¹⁰⁾ 귀문관이 있는 지대와 영남을 張均은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瘴海와 일맥상통하게 ‘瘴江’이란 시어를 통해 장기에 둘러싸인 공간의 규모와 그곳의 기후가 습하다는 점을 나타냈다. 또한 장기를 일으키는 요소 중 하나인 더위를 강조하기 위해서 불을 나타내는 ‘火’와 ‘炎’을 사용해 열기의 강도를 드러냈다. 끝 ‘窮’을 사용하여 이곳이 중원 문화권의 경계선이란 것을 나타냈고, ‘鬼門關’이라는 이름에 입각하여 귀신이 관문을 지키는다고 표현하였는데, 이로써 자연환경의 혹독함과 지형 및 물상의 무시무시함을 반영했고, 남방에 대한 혐오를 노골적으로 표출했다. 이러한 혐오는 3, 4구에 등장하는 영남에 대한 평가에서도 이어진다. 張均은 영남을 인간 세상에 속하지 않는 공간으로 분류했고, 앞으로의 영남에서의 생활을 삶과 죽음 사이, 즉 살았다고 할 수 없고 죽었다고도 할 수 없는 간신히 목숨을 부지하

9) 『全唐詩』, 권 90_6.

10) 『舊唐書·地理志四』: 其南尤多瘴癘, 去者罕得生還. 諺曰: “鬼門關, 十人九不還.” 귀문관 남쪽이 특히 풍토병이 많은데, 간 사람 중에서 살아 돌아오는 이가 적다. 귀문관을 넘은 사람은 10명 중 9명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속담이 있다.

는 생활이라고 정의했다. 그러므로 張均이 그 공간에 소속감이나 안정감을 느꼈을 가능성은 만무하다. 영남은 그에게 있어서 생소함을 뛰어넘어 죽음의 땅이었다. 그리고 이는 자신의 처지와 미래에 대한 張均의 절망 및 체념을 독자들에게 생생하게 전달하였다.

영남 지역의 위험성을 이보다 상세하게 서술한 시인이 있는데, 그는 바로 韓愈이다. 그의 「瀧吏」라는 시를 감상해보자.

전략

嶺南大抵同, 官去道苦遼.

嶺南은 대체로 같고, 관리가 가면 먼 길에 고생하네.

下此三千里, 有州始名潮.

이곳에서 3천 리 내려가면, 비로소 潮州라는 곳이라네.

惡溪瘴毒聚, 雷電常洶洶.

惡溪에는 독 있는 장기가 모여들고, 천둥번개는 자주 흉흉하게 내려치네.

鱷魚大於船, 牙眼怖殺儂.

악어는 배보다 크고, 이빨과 눈은 나를 죽일 것처럼 무섭네.

州南數十里, 有海無天地.

潮州 남쪽 수십 리에는 바다만 있고 천지가 없네.

颶風有時作, 掀簸真差事.¹¹⁾

태풍이 때때로 일어나는데, 휘몰아쳐서 진실로 기괴하네.

후략

이 시는 潮州刺史로 좌천된 한유가 부임 도중 급류 가에서 배의 안전을 관리하는 瀧吏에게 潮州의 상황을 묻고, 그 관리가 답하는 구조로 이루어졌다. 다시 말해서 한유는 관리의 입을 빌려 潮州를 비롯한 영남에 대한 자신의 인상을 구체적으로 그려낸 것이다. 한유는 영남 지역의 자연지리는 대체적으로 열악하다고 개괄한 다음 그 이유를 하나하나 나열했다. 먼저 한유는 습한 惡溪에 독 있는 장기가 모인다고 하여 潮州의 위험성을 드러냈다. 惡溪는 ‘惡水’라고도 불리며, 현 廣東省 韓江과 상류인 梅江을 가리킨다. 명칭에 ‘惡’이라는

11) 『全唐詩』, 권 341_10.

글자가 붙은 것만 보더라도 이 강에 대한 한유와 옛 사람들의 인식을 알 수 있다. 지속되는 번개는 사람을 놀라게 하여 불안감을 자극하고, 배보다 더 큰 식인 악어 역시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하므로 한유에게 潮州는 안정감 혹은 소속감과 거리가 먼 공간이라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악어에 대한 언급은 허구가 아닌데, 이는 한유가 백성에게 피해를 주는 악어를 몰아내기 위해 「祭鱷魚文」을 지어 물속에 던졌다는 일화로 증명된다. 그리고 남쪽에 천지가 없고 일망무제한 바다만 펼쳐져 있다는 서술 역시 그곳이 천하의 끝이자 인간이 사는 공간이 아니라는 인식 및 세계관을 나타낸다. 바다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북방에서는 보기 힘든 태풍도 체험할 수 있었다. 이처럼 다양하고 기괴한 지리 물상 및 事象들은 북방에 있던 한유에게는 미지의 존재라서 그의 두려움과 우려를 유발하였고, 이는 潮州를 낯선 공간으로 만들었다. 위에서 인용한 시문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한유는 이 시에서 “죄가 있으면 유배가는 곳이네(有罪乃竄流)”, “이 潮州의 죄수의 말에 따르면(比聞此州囚)”, “진실로 죄인이 가는 곳이네(固罪人所徙)”라는 구절들을 통해 수차례 潮州를 죄 있는 이를 가두는 유배지로 정의했다. 潮州가 회재불우의 나그네를 가두는 천연감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앞서 열거한 낯선 자연 지리이므로, 후자에 대해 한유가 혐오의 마음을 품었던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한유와 마찬가지로 江州(오늘날의 江西省 九江市에 해당)로 좌천되었던 白居易 역시 남방의 번개에 관심을 기울였었다. 그의 시 「聞雷」를 논의해보자.

瘴地風霜早, 溫天氣候催.

장기 있는 지방은 바람과 서리가 이르고, 따뜻한 기후는 기상을 재촉하네.

窮冬不見雪, 正月已聞雷.

겨울 다 가도록 눈도 보이지 않고, 정월인데 이미 천둥소리가 들리네.

震蟄蟲蛇出, 驚枯草木開.

자고 있던 벌레와 뱀이 울림에 나오고, 시들었던 초목이 놀라서 피네.

空餘客方寸, 依舊似寒灰.¹²⁾

비어있는 나그네의 마음만이 여전히 식은 재와도 같네.

장기가 만연하는 따뜻한 기후 때문에 江州는 북방보다 바람이나 서리, 그리고 번개와 같은 기상현상이 더 일찍 발생했다. 덥고 습한 지역이라 사계절이 뚜렷하지 않았고, 겨울 내내 북방과 다르게 눈이 내리지 않았다. 과거의 거처와 대조되는 이 모든 지리 事象은 江州를 白居易에게 생소한 공간으로 만들었다. 번개가 벌레와 뱀을 깨우고 시든 초목을 피게 하는 등 자연물에 생명력을 불어넣었지만 좌천 때문에 실의에 가득 찬 白居易의 식은 재와도 같은 마음에 다시 불을 지피지 못했다. 생물에게 번개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적응하기만 하면 江州 역시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이란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白居易는 끝내 이 공간에 적응하거나 귀속되지 못했고, ‘瘴地’라는 시어에서도 나타나듯이 지역 전체를 ‘장기의 땅’이라는 부정적인 공간으로 일괄하며 혐오의 마음을 드러냈다.

장기로 인해 발생하는 지리 事象 하나에 초점을 맞춰 남방에 대한 미움을 표출하는 시도 있다. 元稹의 「蟲豸詩·蛇·三首·其一」을 보자.

陰深山有瘴, 濕熱草多蛇.
 깊은 산속에는 장기가 있어, 습한 풀 속에는 등애가 많은.
 衆噬錐刀毒, 群飛風雨聲.
 무리로 물면 뾰족한 칼처럼 독하고, 떼로 날면 비바람 소리를 내네.
 汗粘瘡痂痛, 日曝苦辛行.
 땀이 상처에 닿아 아프고, 해가 내리찍니 걷는 게 고생이다.
 飽爾蛆殘腹, 安知天地情.¹³⁾
 너희 구더기의 배를 채워라, 어찌 천지의 정을 알리.

元稹은 荊蠻과 通州 등 지역으로 좌천되어 남방이란 공간을 직접 경험했던 시인이고, 이 시는 남방 산 속의 장기로 인해 대량 발생한 등애를 읊은 영물

12) 『全唐詩』, 권 441_55.

13) 『全唐詩』, 권 399_8.

시다. 이 事象이 초래한 피해를 元稹은 여실히 묘사하였다. 등에는 元稹을 물어 육체에 고통을 주었고, 날면서 소음을 내 정신을 사납게 하며 혐오감을 일으켰다. 그리고 남방의 폭염은 발한을 촉진하여 상처를 더욱 아프게 하여 길을 걷기가 힘들었다. 이처럼 촉각 그리고 청각적으로 고통을 준 등애와 그것을 발생시킨 장기, 아울러 고통을 더욱 심화시킨 남방의 더위에 대한 元稹의 혐오와 불우한 처지로 인한 울분을 시에서 읽어 낼 수 있다. 하지만 남방으로 좌천된 나그네의 피를 뽑아 고통을 주면서 자신의 배를 채우는 등애의 모습을 독자들은 타인을 비방하면서 이익을 취하는 조정의 부패한 관리들과 겹쳐볼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元稹은 두 개의 동형구조를 사용했는데, 북방에 있는 탐관오리들에 대한 증오를 남방의 자연지리에 대한 혐오에 비유함으로써 풍자의 완곡함을 제고시켰고, 말로 헐뜯는 행위를 입으로 피 뽑는 행위에 비유함으로써 생동감을 향상시켰다.

좌천의 신분이 아니더라도 남방을 방문한 시인의 감회는 여타 북방 출신 시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劉言史의 「廣州王園寺伏日卽事寄北中親友」를 예로 들겠다.

전략

地偏毛瘴近, 山毒火威饒.

지방이 편벽하여 장기가 가까이 있고, 산은 독한 불기운에 둘러싸였네.

裊汗絺如濯, 親床枕並燒.

땀에 전 옷은 씻은 듯하고, 침상에 몸을 붙이니 베개와 함께 불타네.

중략

旅恨生烏滸, 鄉心系洛橋.

나그네의 한이 烏滸에서 생겨나고,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은 洛橋에

매여 있네.

誰憐在炎客, 一夕壯容銷.¹⁴⁾

불속에 있는 나그네를 누가 불쌍히 여길까, 하루저녁 만에 젊었던 얼굴

이 삭았네.

14) 『全唐詩』, 권 468_18.

수련과 함련은 廣州의 험악한 자연지리를 그려냈다. 그 공간은 장기와 불기운에 에워싸여 있었고, 옷이 땀에 흠뻑 젖도록 만드는 열기는 잠을 설치게 할 정도였다. 그 뿐만이 아니라 그곳은 ‘烏滸’라는 소수민족이 생활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자연지리와 인문지리 모두 劉言史가 廣州를 낯선 공간으로 인지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낯설음은 劉言史에게 본인이 벽지에 홀로 있다는 사실을 절감시켰고, 그의 객수와 향수를 불러일으켰다. 요컨대 편안한 취침과 휴식이 불가능하고, 고향이 있는 북방을 동경하며, ‘불속에 처해있다(在炎)’는 서술에서는 영남에 대한 일말의 애정도 느껴지지 않는다.

당대 시인의 남방 혐오는 현대인에게 있어서 휴양지이자 여행의 성지인 남방의 바다에도 똑같이 적용되었다. 張子容의 「永嘉作」을 살펴보자.

拙宦從江左, 投荒更海邊.
 淒涼한 관리는 장강 하류의 동쪽을 따라, 황량한 바닷가로 유배되었네.
 山將孤嶼近, 水共惡溪連.
 산은 홀로 있는 섬과 가깝고, 물은 악한 개울과 이어져있네.
 地濕梅多雨, 潭蒸竹起煙.
 지역이 습하니 장마가 길고, 못은 증발하고 대나무에서 연기가 나네.
 未應悲晚髮, 炎瘴苦華年.¹⁵⁾
 늦은 백발 슬퍼할 필요가 없을 터, 무더운 장기가 젊은 시절을 괴롭혔기에.

이 시는 張子容이 남방의 바다 인근 지역으로 유배된 뒤에 지은 시다. 수련의 ‘拙宦’과 ‘投荒’은 그가 폄적된 신분이란 것을 나타낸다. 함련의 ‘孤嶼’는 산뿐만 아니라 섬이 거주 공간 근처에 있는 보기 드문 환경을 나타내고, ‘孤’는 육지에서 떨어진 섬과 마찬가지로 북방에서 동떨어져 있어 외로운 張子容의 마음을 상징한다. 수원이 나쁜 시내와 이어져 있다는 것은 물에 독이 있어 주거환경으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시사한다. 경련에서는 기상과 지리 事象을 구체적으로 묘사했는데, 땅이 습하고 비가 많이 오며, 연못이 증발하고

15) 『全唐詩』, 권 116.8.

대나무에서 아지랑이가 피어오를 정도로 더워 장기를 발생시켰다. 이처럼 습하고 더운 남방은 張子容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공간이라서 그는 친근감을 느끼지 못했는데, 이는 미련의 ‘苦(고생하다)’라는 시어에서 충분히 드러난다. 한창 젊음을 불태우며 꿈을 위해 분투하는 시절인데, 남방의 해변 가에서 장기와 싸우는 처지에 張子容은 회재불우를 느꼈을 것이고, 허송세월을 강요하는 남방이란 공간에 대해 그는 절대로 호감을 가질 수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남방 출신인 시인은 과연 남방이란 공간을 좋아했는가? 이는 영남 지역 태생인 張九齡이 지은 「夏日奉使南海在道中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략

朝發高山阿, 夕濟長江湄.

아침에 높은 산언덕에서 출발하여, 저녁에 장강가를 건너네.

秋瘴寧我毒, 夏水胡不夷?

가을 장기가 어찌 나에게 독이 되고, 여름 물은 어찌 잔잔하지 않겠는가?

信知道存者, 但問心所之.

도가 있는 자는 단지 마음이 가는 곳을 묻는 다는 것을 참으로 알게 되었노라.

있노라.

呂梁有出人, 乃覺非虛詞.¹⁶⁾

呂梁에 출중한 사람이 있다더니, 이에 거짓이 아니라는 느낌이 드네.

張九齡의 고향은 영남에 속하는 韶州曲江(오늘날의 廣東省 韶關)이다. 제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張九齡은 좌천을 당한 것이 아니라 임금의 명을 받은 사자로서 남해에 가게 되었다. 그가 장기가 넘치는 남방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지는 발췌문의 두 번째 연과 세 번째 연에서 드러난다. 그는 두 개의 반문을 사용하였는데, 그 의미를 풀이하자면, 가을 장기는 원래 독이 되고 여름 물은 잔잔하지 않지만, 자신은 도가 있고 임금을 향한 충성심이 있어서 장기와 여름 물이 두렵지 않고, 이 두 지리 물상으로 대변되는 남방의 역경을 이

16) 『全唐詩』, 권 47_37.

겨낼 수 있다는 것이다. 그가 이처럼 정신승리를 하고 있지만, 이는 영남 출신인 張九齡조차 장기가 독이 있는 유해 물질이고, 남방은 열악한 환경을 지닌 공간이라고 인정했다는 것을 암시한다. 즉 앞에서 살펴보았던 북방의 시인들과 마찬가지로, 張九齡에게도 영남은 고향이지만 결코 친숙하거나 이상적인 공간이 아니었던 것이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장기간 시어를 선택한 목적이다. 북방의 시인들은 남방을 향하는 친구에 대한 동정, 본인의 회재불우나 좌천에 대한 원망, 그리고 향후의 남방 생활에 대한 걱정 등의 감정 혹은 사상을 부각시키기 위해 장기를 사용했다면, 張九齡은 자신의 결의, 포부, 충정을 표출하기 위해 장기를 선택했다.

4. 풍토병을 일으키는 배척의 공간

북방과 확연히 다른 지리환경이 남방을 낯선 공간으로 시인들의 눈에 내비추어 그들의 미움을 샀다면, 육체적인 고통을 유발하여 시인이 남방에서 배척 받는다는 것을 실감시키고 남방에 대한 혐오를 배가시키는 몰상도 있었다. 그것은 바로 풍토병이다. 남방의 풍토병 역시 장기와 마찬가지로 ‘瘴’이라고 불렀는데, 장기가 일으키는 병이라 여겨졌다. 풍토병에 걸린 시인은 발열이나 구토, 그리고 설사 같은 증상에 시달리게 되는데, 이 때문에 외적으로는 남방이란 공간이 자신을 환영하지 않아 견디기 힘든 시련을 내린 것이라 느끼고, 내적으로는 자신의 몸이 남방의 공간에 융화하는 것을 거부한다고 느끼게 된다. 즉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든 시인은 결코 남방을 좋아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풍토병으로 인한 남방에 대한 혐오를 집중적으로 표출한 시인이 있었는데, 전장에서 언급했던 元稹이다. 우선 그의 시인 「三兄以白角巾寄遺髮不勝冠因有感歎」을 읽어보자.

病瘴年深渾禿盡, 那能勝置角頭巾.

풍토병이 해마다 심해져 머리가 거의 다 빠졌으니, 어찌 두건을 건딜 수 있겠는가.

暗梳蓬髮羞臨鏡, 私戴蓮花恥見人.

몰래 헝클어진 머리를 빗고 거울 비추는 것을 부끄러워하며, 몰래 연꽃을 쓰고 사람 만나는 것을 부끄러워하네.

白髮過於冠色白, 銀釵少校額中銀.

백발이 관의 색깔보다 더 희고, 은못은 흰 턱수염에 건줄 수 없네.

我身四十猶如此, 何況吾兄六十身.¹⁷⁾

난 나이가 40인데도 이와 같은데, 60인 우리 형님은 또 어떻겠는가?

이 시에서 元稹은 해마다 심해지는 풍토병이 자신의 몸에 어떠한 이변을 일으켰는지 설명하였다. 그는 머리카락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먼저 「春望」의 杜甫처럼, 40세에 불과한 元稹은 풍토병이 준 신체적 아픔 때문에 머리카락이 거의 다 빠져 두건을 받칠 수 없게 되었다. 이 때문에 元稹은 머리를 가리기에 급급했고, 거울을 비추는 것이나 사람과의 만남은 모두 그에게 극도의 스트레스를 가져왔다. 얼마 남지 않은 머리카락조차 백발이 되었는데, 관이나 못 같은 흰색 물건과 대비함으로써 머리카락이 흰 정도를 강조하였다. 고금을 불문하고, 미를 추구하는 것은 사람의 본능이니, 희거나 빠져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머리카락이 元稹에게 초래한 근심과 수치심은 현대의 독자들도 쉽게 공감할 수 있다. 좌천된 것만으로도 실의와 근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데, 병으로 육체적 변화까지 겪게 하여 자신의 슬픔을 심화시키는 남방은 元稹에게 있어서 적대적인 공간이자 증오의 대상이었다.

제목 자체가 풍토병과의 관계를 암시하는 그의 시 「遣病十首·其一」를 이어서 보자.

服藥備江瘴, 四年方一癘.

약을 복용해 강가의 장기에 대비하니, 사년에 비로소 한 번 병에 걸리네.

豈是藥無功, 伊予久留滯.

어찌 약이 효능이 없어서이겠는가? 내가 오래 머물러서 그렇다네.

17) 『全唐詩』, 권 415_47.

滯留人固薄, 瘡久藥難制.

체류하면 사람은 진실로 쇠약해지고, 장기를 오래 마시면 약으로 치료하기 힘들어지네.

去日良已甘, 歸途奈無際.¹⁸⁾

지나간 날은 정말로 달콤했는데, 돌아갈 길은 끝이 보이지 않네(돌아갈 기약이 없네).

시를 통해서 독자들은 元稹이 오랜 시간동안 풍토병을 앓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약을 먹으면서 병을 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4년에 한번 꼴로 여전히 풍토병에 걸렸고, 오랫동안 장기에 노출되어 약이 점점 효능을 잃었다. 약조차 듣지 않는 풍토병과 싸우며 남방에 머물러야 한다는 사실에 元稹은 무력감과 절망감을 느꼈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남방 생활에 진절머리가 난 그는 ‘久(오래)’와 ‘留滯(체류하다)’, 그리고 ‘藥(약)’이란 시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지속되는 투병생활에 대한 싫증과 혐오를 표출했다. 미련에 나오는 달콤했던 북방과 病苦를 주는 남방의 대비 역시 남방을 향한 염오와 좌천으로 인한 실의가 담겨있다.

세 번째 예는 元稹이 지은 「酬樂天見寄」이다.

三千里外巴蛇穴, 四十年來司馬官.

삼천리 밖의 巴蛇의 굴에는, 40세의 江州司馬가 있네.

瘡色滿身治不盡, 瘡痕刮骨洗應難.

온몸에 장독이 가득해 다 치유하기 힘들고, 궤양이 뼈를 깎아 씻어내기 힘들드네.

常甘人向衰容薄, 獨訝君將舊眼看.

사람은 용안이 노쇠할수록 박약해진다는데, 그대가 여전히 옛 시선으로 사물을 보는 게 놀랍네.

前日詩中高蓋字, 至今唇舌遍長安.¹⁹⁾

저번의 그대 시속의 훌륭한 글귀가, 오늘날에는 온 장안에서 회자된다지.

18) 『全唐詩』, 권 402_4.

19) 『全唐詩』, 권 416_4.

이 시에서 元稹은 풍토병에 대한 혐오와 병상생활에 대한 싫증을 지나라하게 드러냈다. 그는 장기가 몸에 가득 스며들어 이미 완전히 제거할 수 없고, 병 때문에 생긴 궤양이 살 깊이 파고들어 뺏속 까지 이르러 뼈를 깎아 내는 아픔을 유발했다고 묘사했다. 완치불가라는 결론은 元稹이 병마와 싸울 의지를 상실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풍토병이 지속되므로 그는 끝내 남방이란 공간에 적응하지 못할 것을 뜻한다. 또 나아가 좌천되어 회재불우의 수심에 고통 받는 현재의 처지와 타협하여 희망을 포기했다는 것을 상징한다. 미련에서 서술한 것처럼 비록 白居易도 江州로 좌천을 당했지만, 그의 시가 장안에서 널리 알려져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다는 것은 그의 출중함을 임금이 다시 알아봐 그를 도성으로 부를 가능성이 있고, 그의 작품이 후대에 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에 비해 병 때문에 끊임없이 고통 받는 자신의 신세를 되돌아보며 元稹은 더욱 처량해졌고, 좌절과 남방에 대한 원망은 더욱 깊어졌다.

元稹 뿐만 아니라 남방의 수많은 지역을 유랑했던 杜甫 역시 풍토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그의 「雷」라는 시를 함께 보자.

大旱山嶽焦, 密雲復無雨.
큰 가뭄에 산악이 불타고, 구름은 뿔뿔하나 연이어 비가 없네.
南方瘴癘地, 罹此農事苦.
남방은 풍토병의 땅이니, 이 가뭄을 만나 농사꾼이 고생하네.
중략
氣喝腸胃融, 汗滋衣裳汗.
더위를 먹어 설사를 하고, 땀에 젖어 옷이 더러워졌네.
吾衰尤拙計, 失望築場圃.²⁰⁾
나는 쇠약하고 생계에 쫓들리니, 실망하여 밭을 가꿀 마음이 없네.

이 시는 남방에 있는 夔州에서 타향살이를 하던 杜甫가 旱災를 당해 지은 시다.²¹⁾ 구름은 있는데 비가 오지 않는 사람을 우롱하는 듯한 날씨, 그리고

20) 『全唐詩』, 권 221_21.

21) 韓成武, 張志民, 『杜甫詩全譯』, 石家莊: 河北人民出版社, 1997, p.705.

불타는 산은 夔州의 혹독한 자연지리를 나타낸다. 이러한 환경으로 인해 두보는 풍토병에 걸렸고, 발열로 위장이 약해져 설사를 했다. 게다가 끈적끈적한 땀은 옷을 더럽게 하여 짜증을 불러일으켰다. 가뜩이나 노쇠하고 살림이 힘들었던 두보였기에, 그에게 이와 같은 불쾌한 체험을 제공한 남방은 자신을 배척하는 매정한 공간으로 다가왔고 전원에 은거하고자 했던 그의 결심을 동요시켰다. 이에 두보는 남방을 ‘풍토병의 땅(瘴癘地)’이라 정의하여 南嫌의 정서를 표현했다.

마지막으로 劉禹錫의 「臥病聞常山旋師策勳宥過王澤大洽因寄李六侍郎」이란 시를 보겠다.

寂寂重寂寂, 病夫臥秋齋.
 고요하고 또 고요한데, 병자가 가을 서재에 누워있네.
 夜蛩思幽壁, 槁葉鳴空階.
 밤 귀뚜라미 어두운 벽에서 슬퍼하고, 마른 잎 빈 계단을 울리네.
 南國異氣候, 火炆尚昏霾.
 남방은 기후가 달라, 가을 하늘이 여전히 어둡네.
 瘴煙跼飛羽, 沴氣傷百骸.
 장기 안개는 날개를 떨어뜨리고, 요사한 기운은 전신을 해치네.
 中략
 逐客樵悴久, 故鄉雲雨乖.
 쫓겨난 나그네 초췌한지 오래고, 고향과는 기후가 다르네.
 禽魚各有化, 予欲問齊諧.²²⁾
 새(鵬)와 물고기(鯢)가 각자 습속을 지녔으니, 나는 『齊諧』에 묻고자 하네.

가을임에도 불구하고 북방과 다르게 무더운 남방 기후로 인해 劉禹錫은 풍토병에 걸려 병상에 누웠다. 새의 날개가 떨어지듯이 남방의 장기는 그의 수족을 무겁게 만들어 거동이 불편하게 하였고, 독 있는 기운은 뼈 곳곳으로 스며들어가 몸을 해쳤다. 이러한 고통은 劉禹錫이 자신이 현 공간에 받아들여지

22) 『全唐詩』, 권 355_3.

지 않는다고 여기게 만들었고, 그는 자신이 있는 남방과 기후가 다른 고향이 떠올랐다. 하지만 축객의 신분인 그는 북방과 남방 두 공간에서 모두 배척받아 천애고독의 감정을 느꼈고, 이는 고요하고 또 고요한 주거지의 주변 환경에 의해 더욱 심화되었다. ‘悲秋’는 본래 고대 지식인들이 낙엽이 지고 싸늘해지는 가을의 事象을 보고 느끼는 전통적이고 공유되는 정서이다. 그러나 장기 때문에 북방의 가을과 다른 남방의 가을은 정상적인 悲秋의 감정도 못 일으키므로 劉禹錫의 ‘悲’의 감정을 더욱 증폭시켰다. 설상가상으로 장기 때문에 질병까지 걸렸으니, 그는 결국 북방을 그리워하고 남방을 미워하게 되었다.

5. 결론

지금까지 ‘瘴’이란 시어를 중심으로 당시를 분석함으로써 시인들이 소지했던 南嫌의 정서를 검토하였다. 시인들은 문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고, 문학적 전통을 따르는 것을 문인이란 신분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여겼다. 이 때문에 남방에 관한 선대 지식인들이 남긴 정보는 당대 시인들이 남방을 저주받은 공간으로 인지하는 데 일조하였고, 그곳으로 떠나는 사람은 연민의 대상이 되었다. 또한, 장안이나 고향을 떠나 남방에 도착한 시인들을 맞이한 것은 북방과 상이한 자연지리였는데, 有毒, 폭염, 다습 등으로 대변되는 지리적 특성은 남방을 낯선 공간으로 만들어 북방에 대한 그리움을 불러일으켰고, 정치적 실패를 상기시켜 낙담하게 하였다. 이는 남방에 대한 그들의 혐오를 더욱 심화시켰다. 아울러 남방에서 걸린 풍토병은 남방에 적응하려는 시인들의 노력을 잔인하게 무산시켰고, 향수와 회재불우 등의 정신적 고통과 더불어, 병증과 물리적 고통을 선사하였다. 이로써 남방은 수난의 공간이 되었고, 남방에 대한 시인들의 분노는 극에 달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남방 방문 경험의 유무를 막론하고, 시인들은 전통과 선입견, 현지의 자연지리, 그리고 질병 등의 이유로 남방을 싫어했으며, 그 혐오의 마음

은 瘴과 관련된 자연물 및 事象에 대한 토피한 묘사를 통해 표출됐다. 그들에게 있어서 ‘瘴’은 남방과의 조화를 저해하는 ‘障’애물이었고,²³⁾ 울분과 근심, 그리움 등 시의 핵심 감정을 증폭시키는 촉매였으며, 그 심리상태를 독자들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도구였다. 본고는 남방이란 지역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지만, 장안과 대조되는 자연환경은 남방뿐만 아니라 기타 지역에도 존재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남방에 대한 통찰이 변세시를 포함한 도성 이외의 공간에서 작성된 문학작품을 연구하는 데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23) ‘瘴’은 본래 ‘障’이라고 쓰였는데, ‘障’자는 東漢시기에 이미 ‘질병’이란 의미를 갖고 있었고, ‘瘴’자는 西晉에서 南朝 사이에 출현한 것으로 추정된다. 劉宋시기 이후로는 ‘障’, ‘瘴’, ‘鄣’이 서로 혼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張軻風, 「從“障”到“瘴”: “瘴氣”說生成的地理空間基礎」, 『中國歷史地理論叢』, 24卷 2期, 2009, p.138)

參考文獻

- 김준연, 「杜甫 秦州·同穀 時期 詩에 나타난 공간의 이중성」, 『중국어문학지』, 51권, 2015.
- 范曄, 『後漢書』, 北京: 中華書局, 1965.
- 方輅 譯註, 『山海經』, 北京: 中華書局, 2014.
- 馮漢鏞, 「瘴氣的文獻研究」, 『中華醫史雜誌』, 11卷 1期, 1981.
- 龔勝生, 「2000年來中國瘴病分布變遷的初步研究」, 『地理學報』, 48卷 4期, 1993.
- 韓成武, 張志民, 『杜甫詩全譯』, 石家莊: 河北人民出版社, 1997.
- 李榮華, 「“南方本多毒, 北客恒懼侵”: 略論唐代文人的嶺南意象」, 『鄱陽湖學刊』, 5期, 2010.
- 劉昫 等, 『舊唐書』, 北京: 中華書局, 1975.
- 彭定求 等, 『全唐詩』,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6.
- 蕭璠, 「漢宋間文獻所見古代中國南方的地理環境與地方病及其影響」, 『中研院史語所集刊』, 63卷 1期, 1993.
- 曾大興, 『文學地理學概論』, 北京: 商務印書館, 2017.
- 王逸, 『楚辭章句』, 臺北: 五洲出版社, 1965.
- 楊武泉 校註, 『嶺外代答校注』, 北京: 中華書局, 1999.
- 張軻風, 「從“障”到“瘴”: “瘴氣”說生成的地理空間基礎」, 『中國歷史地理論叢』, 24卷 2期, 2009.
- 張文, 「地域偏見和族群歧視: 中國古代瘴氣與瘴病的文化學解讀」, 『民族研究』, 3期, 2005.
- 左鵬, 「宋元時期的瘴疾與文化變遷」, 『中國社會科學』, 1期, 2004.

Abstract

A Study on Aversion to Southern China Displayed in Tang Poetry - Focusing on the Image 'Zhang (Miasma)'

Kim, Dong Jin

This paper studies Tang poets' aversion to southern China by analyzing Tang poetry containing the geographical image 'zhang' (瘴, miasma). This kind of hatred mainly generated from three factors. First, Tang poets had prejudice against southern region due to their inheritance of literary tradition. Second, the difference in geographical environment between southern and northern China made them unfamiliar with southern China. Third, some of them suffered from the peculiar endemic disease in southern China. Therefore, from these three aspects, this paper examines how Tang poets' repugnance to southern China comes into being. It also explores, from both literary and geographical perspective, how 'zhang' was depicted in specific poems, how 'zhang' collaborates with other poetic images to reflect poets' aversion to southern China, and how poets express their feelings and thoughts by using 'zhang' as a medium.

Key words : miasma, south, southern China, aversion, endemic disease, geographical image, literary geography

투 고 일 : 2022. 1. 10. / 심 사 일 : 2022. 1. 15. ~ 2022. 2. 15. / 게재확정일 : 2022. 2. 20.

